

‘민주당 후원당원 명부 유출’ 파문

前 중앙당 간부 “당비대납 등 이용” 광주지검에 탄원서

부대변인 “비당원이 출처 불명 명부 배포... 법적 조치”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후원당원 명부 유출과 불법 당비대납 의혹을 제기해온 가운데 민주당 전직 간부가 5일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민주당 후원당원 명부 유출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도 당비대납 사례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일부 후보들은 이 명부가 당내 각종 여론 조사의 자료로 사용됐으며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전승권 민주당 전 윤리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5일 오후 “민주당 후원당원 명부가 불법 유출돼 경선과정과 당비대납에 이용되고

있다”며 이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광주지검경찰청에 제출했다.

전씨는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를 뽑는 여론조사 경선준비과정에서 8만1천명의 후원당원 명단이 유출됐고 이중 3만명의 명단이 외부에 나돌고 있다”며 후원당원 3만명의 명단을 탄원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

이 명부에는 전남지역 시·군별 후원당원 명단과 당비 납부방법, 집 주소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까지 빠곡히 적혀 있다.

전씨는 또 “유출된 명단이 도지사·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경선에 불법적으로 사용되거나 당비대납 등이 이뤄졌다면 선거법상 경선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조만간 후원당원 명부유출이 수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 이를 선거전담 부서인 공안부에 배당해 사실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남지방경찰청은 경선 여론조사에 활용되는 후원당원 명부가 일부 후보 진영에 흘러다니는 점에 주목, 유출된 명단 확보에 나서는 등 내사를 벌여왔다.

현행 정당법상 당원 명부 열람은 범죄 수사를 위한 조사에 한해 필요로 하는 등 엄격히 제한돼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당원도 아닌 인사들이 출처불명의 명부를 마치 민주당에서 유출된 선거명부인 것처럼 꾸며 언론 등에 배포하고 있다”며 “5·31 지방선거용 명부는 중앙당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어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체 조사결과 일부 인사들이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명부는 현재 민주당이 보유하고 있는 선거 명부의 양식과 내용이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허위 사실 유포 인사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리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을 지낸 전승권씨가 5일 오후 광주지검을 찾아 ‘후원당원 명부 불법 유출과 당비대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와 3만명의 당원 명부를 제출하고 있다. /위직기자 jwji@kwangju.co.kr

5·31 지방선거 현장

김경재씨 서울시장출마 선언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경재 전 의원이 6일 광주를 찾아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3시30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 선언을 한 뒤 다음 날에는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김 후보는 5일 “민주당은 호남을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어떤 지지자들도 호남에 안주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의 민주당은 그 바람을 들어주지 못한 채 호남에서조차 잇따른 공천 파문으로 지지자들의 마음을 쓸쓸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3년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위해 당선이 보장된 재선 지역구 순천을 떠나 서울행 열차를 탄데 이어 두 번째로 순천발 서울행 열차를 타려고 한다”며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약진하기를 바라는 당원들과 호남인, 서울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재 광주상수도협회를 맡고 있다.

오 후보 전라공천 수용

○오 주 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 후보는 5일 중앙당의 전라공천에 대해 “민주당의 진로와 장래를 생각해 승복하기로 했다”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오 후보는 “전라공천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면 시도민들의 인심이 이반될 것”이라며 “공천에 승복,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중채무자 정책대안 제시

○민주당 오병윤 광주시장 후보는 5일 오전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중채무자 상담 현황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오 후보는 이날 “가계부채 상담을 받은 187명 중 55명이 파산이나 면책을 신청, 이 중 25명이 파산, 15명이 면책 확정됐다”며 “과중 채무자는 평균 7천200만원의 빚에 월수입 120만원의 비정규직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특히 ▲광주시에 신용회복지원센터 설치 ▲개인파산에 드는 법적 비용 지원 ▲광주시 이자율 분정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남구청장 2차 경선후보 선출

○민주당 광주시당은 5일 오후 남구청장 2차 경선 후보 선출을 위해 남구청장 2차 경선 후보로 선출했다.

또한 이날 광산구 나 선거구 기초의원 후보 배심위원 경선에서는 김민중·김창길·최상신 후보가 뽑혔다.

김동식씨 구의원직 사퇴

○김동식 민주당 광주시당 상임부위원장은 5일 광주 서구갑 제2선거구 광역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구의원직을 사퇴했다. 김 후보는 3선 기초의원으로서 현

강기수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민주당 강기수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호남대입구 전철역 앞에 선거사무소(382-2014)를 마련하고 6일 오후 6시 개소식을 갖는다. 같은 당 김창훈 남구청장 예비후보도 광주시 남구 백운동 백운교차로 모아산부인과 옆 건물에 선거사무소(673-0415)를 마련하고 7일 오후 7시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전략공천 여진 계속

민주당 광주시당의 서구청장·북구청장 후보 전략공천 파문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반명환 광주시의회 의장의 부인인 최경남씨는 5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권한이 없는 박광태 시장이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략공천자 추천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이날 “중앙당에 올라가 공직위원장에 전략공천 추천 배경을 물어보면 ‘우리는 모르니 광주시장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등 시장이 전략공천에 관여한 흔적이 많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또 “전략공천을 위한 여론조사 때 열린우리당 상대 후보로 광주시장 후보인 김재균 전 북구청장이 왜 선택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노무현 대통령을 북구청장 후보로 놓고 민주당 후보가 경쟁력이 없다고 하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시장은 “기자회견 후 반의장이 시장실을 찾아와 오후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전략공천에 항의하며 3일째 단식농성 중인 신현구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이날 전략공천의 수혜자인 전주인 전 광주시 기획관리실장에게 “정경과 능력에 걸맞은 사람이 어떻게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며 공개경선을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식목일 나무 식재 유공별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당직자들이 5일 식목일을 맞아 광주시청 옆 공터에서 나무를 심고 있다. /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매니페스토 아카데미’ 7일 광주서 열려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가 주최하고 광주일보가 후원하는 ‘제1회 매니페스토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가 7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광주시 서구 치평동 소재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다. 아카데미에 따르면 매니페스토 운동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입지자들이 이 운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5·31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참여 대상은 광역 및 자치구단체장·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자와 각 정당 관계자 등 지역별 70명 내외로 선착순 접수다. 아카데미 교육내용은 ▲매니페스토란 무엇인가 ▲일련의 경험 소개 ▲매니페스토 평가지표 소개 ▲매니페스토 작성법 및 활용법 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아카데미는 지난 4일 서울과 인천을 시작으로 광주가 네번째이며 12일까지 계속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선거 추진본부 홈페이지(www.manifesto.or.kr)를 참조하면 된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선거법, 아하! 그렇군요

후보자 명함에 당대표 함께 찍은 사진 게재 가능

문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명함배부, 전자우편 및 홍보물을 발송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명함과 홍보물에 당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싶은데 가능하나요?

답 예비후보자의 명함과 홍보물에는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므로 당 대표나 다른 사람과 함께 찍은 활동사진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명함은 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관위에 신고한 1인을 포함)가 배부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를 대신해 배부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붕·옥상을라브 우레탄폼 방수전원!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산소재

(주)미양주박개발 TEL: (062) 262-0606 / 262-8458

건설 현지의 모든 것 상설/임도/임수

青碩 C&S TEL: 04512-0217-0 FAX: 04512-1067

방수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직접 공사하세요!

드림수방수 드림코리아 DREAM KOREA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 수석 합격자 배출!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전국 1위 합격률 1위

4월 1일 새강원 시립면

새승 행정고시학원 새승고시학원